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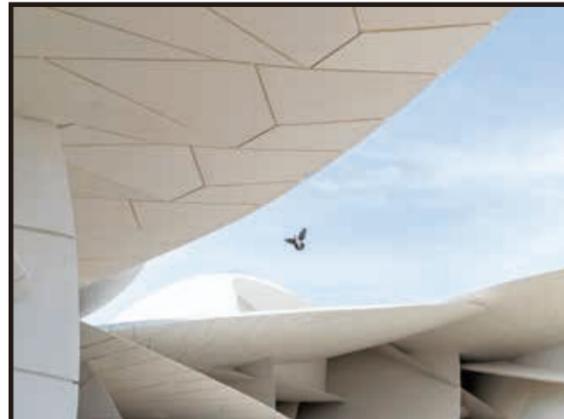


WHERE IS

알프스의 빛나는 방

빛을 활용해 명상적 작품 세계를 선보여온 설치 예술가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이 이번에는 알프스산맥을 캔버스 삼았다. 올가을에 선보인 최신작 <스카이스페이스 레히(Skyspace-Lech)>는 스키 리조트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서부 오베르레히(Oberlech) 산악 지대의 해발 1,780미터에 자리 잡고 있다. 하이킹으로 작품 입구에 도착해 15미터 길이의 지하 터널을 지나면 동형 천장이 타원으로 뚫린 방이 나타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빛이 벽과 천장을 물들이고, 일출과 일몰 때에는 라이트 아트 효과를 통해 초현실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만일 날씨가 좋지 않아 돔 천장을 닫아야 하면, 간츠펠트 효과(Ganzfeld Effect, 뇌에서 환각을 만들어내는 증상)를 활용한 또 다른 라이트 아트를 선사한다.

① 무료 입장(기부금 환영), skyspace-lech.com



도하의 카타르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Qatar)이 마침내 문을 연다. 루브르 아부다비(Louvre Abu Dhabi)에 이어 중동에 두 번째로 들어서는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의 작품이다. 순백의 원반을 여러 개 겹친 독특한 구조로 사막의 장미를 형상화했다고. 역사를 주제로 한 전시장 외에 숲, 레스토랑, 카페,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을 2022 도하 월드컵 준비의 신호탄으로 봐도 좋겠다.

① qm.org.qa/en

생분해되는 글리터 장식이나 버섯 뿌리로 직조한 티셔츠, 미생물로 염색한 드레스 등. 최근 암스테르담에 오픈한 체험형 박물관 패션 포 굿(Fashion for Good)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혁신을 일으키는 패션의 미래를 보여준다. 패션업계를 혼란에 빠뜨린 혁신가 50명의 이야기를 듣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결과물을 만나며,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자신만의 티셔츠를 디자인하고 직접 인쇄해보자.

① fashionforgood.com

WORDS : LEE KI SUN, KIM SUJI
PHOTOGRAPHS : FLORIAN HÖLZHER, NMOO, PRESTIGIEUX

